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

The Blessings Given to Mary Magdalene

요한복음 20:11-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 설교

¹¹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¹²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¹³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¹⁴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¹⁵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¹⁶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¹⁸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흠집 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스캔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몰래 유럽으로 도망을 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꾼들하고 비슷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내뽐고 봅니다. 그러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뭐라 합니까? “아니면 말고!” 그리고 끝입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어쨌든 흠집은 이미 났으니 됐다 그런 심보입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가 인기를 끈 것도 이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스캔들을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라 사 봤지요.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합니다. 그 책을 금서로 정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책 산다고 돈을 쓰는 건 물론 아깝지요. 소설로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돈이라도 아끼자 싶어 다른 분한테 빌어 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같이 다니며 도왔던 여인의 하나였습니다. 막달라는 지명인데 갈릴리 호수 서쪽 어디쯤이라고 봅니다. 이 마리아는 처음 일곱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께서 그걸 내쫓아 주시자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막 16:9; 눅 8:2). 이 막달라 마리아와 혼동되는 사람이 성경에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러니까 마르다 및 나사로와 형제사이인 마리아인데 유대 베다니 사람이니까 갈릴리 막달라 출신과는 다르지요. 또 전에 창녀였다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습니다만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다들 무서워 도망을 갈 판인데 일곱이나 들려 가지고 창녀 노릇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간 반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 27:56; 막 15:40; 눅 23:49; 요 19:25). 어떤 본문은 멀리서 바라보았다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 있던 어머니 마리아 및 요한과 대화도 나누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함께 있었다 했으니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은 십자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몇 해 동안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요한 하나 말고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지내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죽음을 계기

로 오히려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났던 사람들은 숨고 숨었던 사람들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도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 두 사도를 세우신 첫째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는 순간 다 도망갔고 대신 그 동안 뒤치다꺼리만 맡았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주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쯤 요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디로 갔는지 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요한이 집으로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 두 사람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마 27:61; 막 15:47). 두 여인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를 때도 거기 함께 있었고 예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길 때도 뒤를 따라가며 살펴보았습니다 (눅 23:55).

무덤까지는 왜 따라갔겠습니까? 무덤 위치를 봐 두었다가 예수의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실 줄 믿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부활 아침에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둔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가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합니다 (마 28:1). 다른 여인이 하나 더 있었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막 16:1).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셋이 함께 갔지만 마리아가 대표가 되어 주도했다는 뜻 같습니다.

이들은 돌을 누가 굴러줄까 그걸 걱정했습니다. 금요일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은 뒤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여자들이 옮기기 어려운 큰 돌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더니 돌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사실을 알린 다음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함께 왔던 두 제자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는 고개만 가우뚱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만 홀로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선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 분의 시신이라도 잘 챙겨 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그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 눈물 또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천사 둘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자여!” 하고 부르더니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내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지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여자여!” 하고 부르시더니 천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굴 찾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목소리를 듣고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관리인인 줄 알고 혹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 달라 했습니다. 알려만 주면 자기가 챙기겠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챙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극한 정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순간에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시던 몇 년 동안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즉각 몸을 돌려 “라보니!” 하면서 옆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그렇게 수도 없이 불렀을 겁니다. 절을 하며 예수의 발을 잡았습니다 (마 28:9). 눈물은 계속 났겠지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슬퍼 울다가 이제는 살아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으니 기쁨에 겨워 또 울었을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젠 놓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곧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14:1-3). 이제 아버지께 가서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곳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 해 주신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마 28:10). 우리 식으로 한다면 “가서 내 동생들한테 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는 남자지만 마리아에게 “너희”라 하셨으니 남녀 구분 없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 하십니다. 누가 형제자매입니까? 같은 부모를 둔 사람이 형제자매지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같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별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도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셨으니 그 분이 그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상황에 따라서 너희 아버지랑 내 아버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쓰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그 분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차원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같은 분을 같은 용어로 부르지만 뜻은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형제자매 사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에는 선생이시고 주님이셨습니다 (요 13:13). 우리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요 13:16; 15:15).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와 나는 이제 친구사이다 하시더니 (요 15:14-15) 부활하신 지금은 이제 형제자매다, 동기간이다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형제자매사라면 우리는 같은 부모를 두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 2:11).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형제자매는 보통 한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롬 8:15, 23; 갈 4:5).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우리가 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집 아들딸이 되었고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함께 상속

하나님 집 식구가 된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한 부모를 둔 사이이면서 함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입양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롬 8:16-17).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9).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도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고전 6:9 등).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자녀인 우리가 그 나라를 물려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백성이 되지만 그 나라를 물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 5:10).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해 주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 19:28; 눅 22:30).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약속을 주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만 들어가도 영광 중의 영광일 터인데 거기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거라 하십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대는 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 주님 덕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기에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사셨기에 주님을 따라 죽은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부활을 맞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 2:14).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 곧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우리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다음 영광의 부활을 하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형제자매가 되면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합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롬 6:5; 빌 3:10-11; 골 2:12; 3:1).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합니다 (롬 8:17).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딤후 2:12).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 예수의 무덤에 첫째로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 후 만나신 첫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 주님의 형제자매라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 하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내가 이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눅 22:15).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주님도 마음이 많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따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실 거니까 좀 기다리셔도 되지만 주님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자리로 찾아온 믿음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동생이다!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마리아가 받은 복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또한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사람들 일등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등도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런 일등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입니까? 물론 주님 은혜지요. 복은 다 이유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었던 그 복을 마리아가 받은 이유는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시신을 보러 갔지만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챙겨 드려야겠다는 정성이 있었기에 죽으신 예수 대신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준비해 간 향품은 못 쓰고 말았지만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다 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던 시절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여인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곧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받을 복을 압축한 귀하고도 귀한 말씀이니까요.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마리아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묻히시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간 마리아였기에 부활도 가장 먼저 보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 십자가와 무덤부터 보았습니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는 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망간 제자들도 나중에는 십자가를 깨닫긴 했지만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죽어 무덤까지 가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몸소 그걸 보여 주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심으로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5).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 왕 노릇하는 것도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딤후 2:11-12). 지금 인내하지 않으면 훗날의 왕 노릇도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롬 8:17).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바르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여기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을,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를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렵지만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일등으로 만난 것도 복이고, 구원의 뜻을 담은 귀한 말씀을 주님께 들어 전하게 된 것도 복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가장 소중한 복은 역시 주님의 부활이요, 그 부활로 얻게 된 구원과 영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은 곧 우리가 다 함께 받은 복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주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